

해외출장복명서

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김정수
출장기간	2019. 3. 10 (일) ~ 2019. 3. 17 (일)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목적	제 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경비부담	본원부담 (총 3,346,540원)		
주최기관	UN, 대한민국 외교부		
회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회기 우선의제인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접근’에 대한 이슈 공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현황 및 도전과제 (일반토의, 3/11~3/15) -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장관급 원탁회의, 3/11) - 여성리더십 제고 (장관급 원탁회의, 3/11) - 관련 협력관계 구축 (장관급 상호대화, 3/12) ○ 금 회기 검토의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과의 연계에 대한 이슈 공유 및 논의 (상호대화, 3/13~3/14) ○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촉진 및 베이징 +25 리뷰 준비를 위한 이슈 공유 및 논의 (고위급 상호대화, 3/13) ○ 여성 리더십(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및 권한 행사)에 대한 고위급 패널의 경험 및 의견 공유 (UN 총회 의장행사, 3/12) 		
국제교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대표단 정책협력 네트워킹 (3/12) ○ 주유엔대표부 및 외교부, 고용노동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정책협력 네트워킹 (3/13)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9. 4. 8.

출 장 복 명 자: 김 정 수 전 문 연 구 원

해외 출장 복명서

제 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2019. 3. 10 – 3. 17

미국, 뉴욕

2018. 4. 10.

보고자: 김정수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출장 개요

□ 회의명: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The 63rd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일정 및 출장자

- 기간: 2019. 3. 10 (일) - 3. 17 (일) (7박 8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출장자: 김정수 전문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일 자	내 용
3월 10일 (일)	미국 뉴욕 JFK 도착 (KE 81 / 인천 10:00 출발, 11:00 도착)
3월 11일 (월)	• CSW 세션 참가 (개회식 및 장관급 원탁회의)
3월 12일 (화)	• CSW 세션 참가 (UN 총회 의장행사, 일반토의 및 장관급 상호대화) •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대표단과의 정책협력 네트워킹
3월 13일 (수)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고위급 상호대화, 장관급 상호대화) • 주유엔대표부, 외교부 인권사회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 정책협력 네트워킹
3월 14일 (목)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3월 15일 (금)	• CSW 세션 참가 (일반토의, 전문가 패널토의) • 주유엔대표부 인권팀과 정책협력 네트워킹
3월 16일 (토)	귀국 (KE 82 / 13시 00분 뉴욕 JFK 출발)
3월 17일 (일)	16시 25분 인천도착

□ 본원 참가목적

-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주요의제 정부자문 및 각국 동향 파악
- 유엔여성지위위원회참석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 여성이슈관련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각국 참가자와의 국제네트워킹 구축

□ 주요역할

- CSW 회의 첫째 주(3. 11(월) - 3. 15 (금))의 개회식,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장관급 상호 대화, 전문가 패널토의에 참석하여, 주요 인사 및 각국의 발언요지를 요약하여 외교부 전문의 초안을 작성함.
- 전문의 초안은 2차례에 걸쳐 외교부 및 유엔대표부 담당자에게 송부함.

□ 회의사진



□ 일시 및 장소

- 총 회의기간: 2019. 3. 11(월) ~ 3. 22(금)
(본원 참석기간: 2019. 3. 11 (월) - 3. 17 (금))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 주요의제

우선의제 (Priority Theme)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호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접근 (Social protection systems,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검토의제 (Review Theme)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 (Women's empowerment and the link to sustainable development)

□ 배경 및 목적

-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선의제(priority theme)**로 논의될 **사회보호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접근**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체의 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투자(investment)이자, 국제사회의 인권 및 여성과 관련된 주요 국제규범 및 여성의제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로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또한 본 회의에서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2016년)에서 우선의제로 다루어진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 (Women's empowerment and the link to sustainable development)**가 검토의제로 설정되어, 기 합의된 결론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게 됨.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관련 노력의 이행과정에서 얻은 교훈, 도전과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게 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해왔으며, 금년에도 의제에 맞추어 본원 주제 전문가가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함.

□ 회의 일정

일 시		구 분
3.11 (월)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일반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의제)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호체 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접근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원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보수 돌봄,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화(사회보호, 공공서비 스, 지속가능 인프라 제공) b) 여성 리더십 향상 및 직종분리 해결 관련 사회보호, 공공서비스, 지속가능 인프라 정책 기획 및 실행
3.12 (화)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총회 의장 행사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장관급 상호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성평등 및 여성·여아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호체계, 공 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관련 협력관계 구축
3.13 (수)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고위급 상호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촉진 및 베이징 +25 리뷰 준비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화 : 이전 의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
3.14 (목)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상호대화 : 이전 의제 검토 (계속)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비공식 협의 : 합의 결론
3.15 (금)	10: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의 (계속) • 비공식 협의 : 합의 결론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패널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의제)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호체 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접근 • 비공식 협의 : 합의 결론

III

세부논의 내용 요약

제 1일 차 (2019년 3월 11일, 월)

- 개회식
- 장관급 원탁회의

1. 개회식 주요인사 발언 요지

□ 일시 및 장소: 2019. 3. 11(월), 10:00 -13:00, 유엔본부 본회의장

가. Geraldine Burne Nason 여성지위위원회(CSW) 의장

- 제대로 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도모하고,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을 구할 수 있으며, CSW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여성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규범·기준을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

나.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 여성지위위원회는 소위 권력(Power) 지위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는바, 수천 년동안 여성이 체계적으로 무시·소외·침묵당한 현실속에서 성평등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임.
- 2020년은 베이징 행동 강령 25주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 및 유엔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유엔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 자유 및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임.

다. Inga Rhonda King ECOSOC 의장

- 현재까지 50여개국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발적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7월 고위급정치포럼(HLPF)은 각국의 SDG 이행을 보다 더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라. Maria Fernanda Espinosa Garcés 제73차 유엔 총회 의장

-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1995년) 채택이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 및 차별이 만연해있는 점을 우려하는 바, CSW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유엔총회 의장으로서 본인은 성평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를 본인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로 정하고, 모든 대화, 약속, 결정의 중심에 성평등과 여성위 권리 증진을 놓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임.

마. Phumzile Mlambo-Ngcuka UN Women 총재

- 전세계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이며 퇴보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성인지 사회적 보호,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 인프라 개선은 가사노동에 혁명을 가져오고 여성의 학교 중퇴율 감소에 기여할 것임.

바. Hilary Gbedemah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의장

- 189개 회원국이 비준한 CEDAW는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유일한 인권 기구로서 2030 SDG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

사. Dubravka Simonovic 여성폭력특별보고관

- 지난 제62차 CSW 계기로 본인은 여성 폭력·차별 철폐 및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플랫폼을 설립한바 있으며, 동 플랫폼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미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IA-SRVAW), 여성차별문제에 관한 실무그룹(WGDAW), 유엔 신탁기금(Trust Fund) 등 유엔내 여러 독립기구가 기존의 국제 정책 및 법적 체계 이행을 강화시키는데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장관급 원탁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리더십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 공공서비스, 지속가능 인프라 정책 기획 및 실행)

□ 일시 및 장소: 2019. 3. 11(월), 15:00 -18: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본 장관급 회의에서는 우선의제인 “성평등 및 여성/여아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접근, 지속가능인프라 구축”이라는 의제 하에 각국 장관들이 1)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시도한 선사례 및 2)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선사례를 공유함.

□ 상세내용

가. 한국정부 발언 요지(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 우리정부는 낮은 여성임원 비율과 성차별적 직장문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추진하고 있음. 또한, 금년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예정임.

나. 기타 참여국 발언 요지

- **(라트비아)** 유럽연합(EU)의 멤버십이 자국의 사회보호제도와 일·가정양립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여러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개선 성과로서 의회 내 여성대표성, 대학 여성비율, 성별 임금격차 사례가 있음.
- **(아일랜드)** 여아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girls) 수립을 통해 여아의 교육부문에 개선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성의 기업가 지원(scheme for women entrepreneurship), 국가여성네트워크(National Collective Women's Network)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여성(disadvantaged women) 지원, 한부모가정(lone parents)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정책, 에너지 분야 여성참여 지원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태국)** 성인지적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2015년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 개정을 통해 ILO 협약에 맞추어 모성휴가(maternity leave)의 기간을 연장하였음. 이와 더불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개선이 요청되며, 보편적 재생산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독일)** 2015년 연방정부는 공공·민간부문 남녀관리직 등등참여법(Act on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Leadership Position in Private and Public Sector)을 제정하여 여성의 리더십 비율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개선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사결정직의 여성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9년 이후, 여성 총리를 배출한 바 있고, 의회 내 15개석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를 파견하기도 함. WEF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정치분야의 성평등 측면에서 최근 몇 년 간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함. 이 외에도 사회보장과 관련해, 사별한 고령 여성에게 지원금(stipend for aging widowed)을 제공하고, 또한,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존재함.
- **(벨기에)** 여러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개선이 필요하고,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를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리스)** 성평등 국가행동계획 2016-2020(National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2016-2020)이 수립되어 있음.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함. 또한, 여성 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법적지원, 쉼터 등을 제공하며, 난민 및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도 존재함.
- **(일본)** 2016년 여성경력활동증진법(Act concerning Promotion of Women's Career Activities)이 제정된 바 있고, 동등기회·대우법(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Act)도 개정하여 임신, 육아에 대한 지원을 법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노령층에 대한 장기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2020년까지 수립해 가정요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의 교육 및 생계를 지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여성차별에 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Instruction)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아의 교육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음.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로 설정하여, 국가의 전략적 이슈(strategic issues)를 담당하는 여성 장관들을 다수 임명한 바 있음. 또한, 성인지적 사업계획 및 성인지예산(gender planning and budgeting)을 지방정부에도 도입해 사회보호 및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이 그 지방의 문화 등 지역적 차원의 맥락(local context)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덴마크)** 여성의 의사결정직 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는 사회에 팽배한 성별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일례로 덴마크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라나는 남아들에게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필리핀)** 필리핀의 4Ps(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프로그램은 여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안전한 출산과 어린이들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며, 여성폭력 관련해서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고 있음.

제 2일 차 (2019년 3월 12일, 화)

- UN 총회 의장행사
- 일반토의
- 장관급 상호대화
-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대표단 정책협력 네트워킹

1. UN 총회 의장행사

□ 일시 및 장소: 2019. 3. 12(화), 10:00 -13:00, 유엔본부 본회의장

□ 핵심내용

UN 총회 의장이 개최한 특별세션으로 정치적 임파워먼트와 권한 행사(political empowerment and exercise of power)를 의제로 각국 여성대통령(리투아니아 대통령,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아이슬란드 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유럽집행위원회 부의장 등) 및 고위급 인사에 대한 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정치인 및 여성리더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 상세내용

- **(리투아니아 대통령)** 여성 정치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들이 안전지대(security zone)를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임. 리투아니아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음. 이는 위기가 왔을 때, 여성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임. 여성은 위기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여성들이 그 안전지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콜롬비아 부통령)** 성평등은 DNA가 아니기에 가르치고 훈련되는 것이며, 여성들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본인(현재 콜롬비아 부통령)은 콜롬비아 내 여성 최초의 국방장관이 된 바 있음. 여아들이 자기 존중감 제고를 통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 부의장)** 5년 전 41세 여성으로서 이 직책을 맡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책을 맡을 나이가 충분한지 의심을 한 바 있으며, 교육, 사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의 리더십이 잘 수용되는 반면, 안보, 외교 등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음. 따라서 여아들을 위한 역할모델(role model)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미혼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레즈비언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음. 본인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여성리더가 이러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크로아티아 대통령)**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가장 자주 듣고 거슬렸던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임. 이러한 질문에 숨어있는 가정은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first caregiver)라는 가정임.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째, 여성의 리더십은 기본적인 인권(fundamental rights) 이고, 둘째, 경제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여성들이 폭력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수록 사회가 윤택해지며, 셋째,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해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임. 이와 더불어서 성평등은 법 제정 자체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아이슬란드 총리)** 권력구조 자체가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이 갖춰져야 하고, 남성과의 연대(solidarity)도 중요함.

2. 일반토의

□ **일시 및 장소:** 2019. 3. 12(화), 15:00-18:00, 유엔본부 본회의장

가. 한국정부 발언 요지(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 우리 정부는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일례로 성별 격차 해소를 반영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출산 육아 관련 국가돌봄 책임 정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성평등 증진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 등 사회전반의 인식, 인권감수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간극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늘려가는 등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나. 기타 참여국 발언 요지

- **(일본)** 일본은 올해 세계여성회의(3.23-24, 도쿄), G20 정상회의(6.28-29, 오사카) 개최 등 성평등을 포함한 SDG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동계획들을 수립 및 이행해 나가고 있음. 국내적으로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여성, 자녀 양육·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가사노동, 돌봄 등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일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성범죄 발생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 국제적으로는 인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파키스탄 여성·아동 교육 지원 사업, 네팔 여성의 지진 재건 참여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진행해나갈 것임.

- **(캐나다)** 성평등 달성은 올바른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일이며, 2018년 G7 정상회의(6월, 캐나다 퀘벡) 핵심 의제도 성평등 달성이었음. 캐나다는 17-18년도 ODA의 90%를 이미 성평등 달성 목표에 지출했고 금년에는 9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SDG의 달성까지 11년의 기간은 길지 않지만 성평등 달성에 노력할 것임.
- **(호주)** 여성과 소녀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인프라 구축, 노동정책, 의료 및 교육 보조금 제도, 임금지원, 퇴직금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호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한 결과 노동참여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데 성과를 내고 있음.
- **(영국)** 영국은 곧 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바, 모든 여성이 자유, 기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018년 고용주가 남녀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1만명의 고용주가 관련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성생식보건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12억 파운드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분쟁하 성폭력 종식을 위한 글로벌 서밋' 개최 5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11.18-20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G77+중국 그룹 대표: 팔레스타인)** G77+중국은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를 위해 지속 노력해온 바, 동 결과 여성 및 여아의 사회보장체계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그 진전이 더디고 불균등함. 빈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요소가 되는 가운데, 여성 및 여아가 동 도전요소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취약한 계층인 동시에 환경 변화를 도출하는데 있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모든 국가들이 여성 및 여아 인권 증진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사회·행정·법적 조치를 취하고, CEDAW에서 명시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남남협력, 남북협력, 3자간 협력 등 국제 협력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임.
- **(EU 대표: 루마니아)** EU는 모든 인권의 증진 및 보호의 실현과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질 높고 가용할 수 있는 (affordable) 광범위한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정보, 교육, 보건서비스 등

의 중요성을 강조함.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는 특히 교육, 노동, 사회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바, 교육을 통해 개인적·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알맞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하고, 사회적 보호 속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회보호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연계를 지속시켜나갈 것임. EU는 OECD, 유럽의회, UN-Women, World Bank와 함께 여성 및 여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통해 여성폭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유엔과 협력하여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캐리비안, 중남미, 태평양 지역에서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음.

- (ASEAN 대표: 태국) ASEAN은 2012년 ‘ASEAN 인권 선언’ 및 ‘ASEAN 공동체 비전(Community Vision) 2025’를 통해 인권 증진 및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제 NGO와 강력한 파트너십과 시너지를 구축하고, ASEAN내 여성/아동인권증진보호위원회(ACWC)를 설치하였음. ASEAN 의장은 올해 ASEAN의 주제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정하였는데, 사회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 지속가능 인프라가 서로 연결된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잘 조율되고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3. 장관급 상호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3. 12(화), 10:00 -13: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본 장관급 회의에서는 우선의제인 “성평등 및 여성/여아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접근, 지속가능인프라 구축”이라는 의제 하에 각국 장관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대구축(building alliance)의 선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함.

□ 상세내용

가. 한국정부 발언 요지(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 우리 정부는 정부부처간 협력의 사례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 점검단은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근절대책과 관련된 총 9개 부처 직원들이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 지원 업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점검단 운영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 기준 강화 등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성과를 거둠.

- 아울러,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여성 고위직 비율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인바, 앞으로도 성평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

나. 주요 인사 및 기타 참여국 발언 요지

- **(Michelle Bachelet 인권최고대표)** 사회보장체계에서 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은 저임금 노동, 무보수 돌봄, 가사 노동 등으로 인해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여아의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하는 것은 이들의 역량 강화 및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 조건임.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정책 기획 및 실행에 있어서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의지 문제인 바, 회원국은 모든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할 것임. 유엔 내 고위관리직 남녀 비율이 50:50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최근 여성·인권·LGBTI 옹호가, 언론인,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가 정부의 각종 제약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함.
- **(Mary Robinson 'The Elders(국제원로자문그룹)' 의장(前 아일랜드 대통령))**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므로 사회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는바, 이는 여성의 삶에 악순환을 야기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들의 낮은 대표성은 성인지적 정책결정을 어렵게 함.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공적 자금만큼 Green Growth Fund 등과 같은 자선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특히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보다 취약한 계층인 여성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Anne-Birgitte Albrechtsen 플랜 인터네셔널 CEO)** ‘젠더혁신적(gender transformative)’으로 성인지성 뿐만 아니라 연령인지성(age responsiveness), 아동중심적 접근(children-centered approach)도 고려해야 하며, 자녀를 가진 모(母)가 성인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성년 여아가 자녀를 가진 경우 더 많은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임. 전세계 96개국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바,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및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UN-Women에 대한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가 최근 감소되는 추세인 바, 각국의 동 기구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OHCHR내 특별절차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부문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함.

- (스위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매커니즘(stakeholder mechanism) 구축을 위해서는 규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바, 스위스는 수시로 접촉 및 대화 계기를 만들어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 관련 정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호주) 호주는 교육 및 보건 경비 보조금 지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이전, 난민·장애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 지속과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캐나다)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정부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바,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청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당 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자선기금 등이 필요함.
 - 특히 향후 STEM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가정 폭력 피해여성, 인신매매에 노출된 여성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피해자지원법’ 제정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바, 여성쉼터(women shelter)의 경우 2002년 설립 당시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후 노르웨이 등 여타국의 지원을 받아 2016년 국제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로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음.
- (국제장애인연맹) 장애가 있을 경우 위험(risks)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사회적보호가 절실한바, 장애여성은 다중적이고 교차적인(multiple and intersecting) 어려움에 처해있고, 장애여성 및 여아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든 부문의 프로그램이 포용적이어야 함. 또한, 장애가 있는 여아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함.

4.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대표단 정책협력 네트워킹

- 일시 및 장소: 2019. 3. 12(화), 13:00 -15:00, 유엔본부 인근 식당
- 참석자: 여성가족부(진선미 장관, 이진희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외) 및 한국 대표단 및 CSO 인사
- 주요 내용
 - 본 회의에서 본원 및 대표단, 참가자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감사
 - 글로벌 여성이슈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여성가족부와 본원 및 대표단, 참가자들 간 향후 상호 교류 협력 강화

제 3일차 및 4일차 (2019년 3월 13일, 수 - 2019년 3월 14일, 목)

- 일반토의 (계속)
- 고위급 상호대화
- 상호대화: 이전의제 검토

1. 고위급 상호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3. 13(수), 10:00 - 13: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 2020년도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앞두고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동 행동강령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과 성과, 도전과제 및 향후 이행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된 SDG 2030 실현을 위한 기여 방향과 연계하여 각국의 사례를 소개함.
- 각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적·참여적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검토 프로세스, △동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 이행 검토와 SDG 2030 의제의 성인지적 이해 간 연계 방안을 공유함.
- UN-Women은 2020.6월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개최 예정인 'Global Women's Forum' 관련 각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멕시코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동 포럼을 주재할 계획을 발표함.

□ 상세내용

가. 주요국 발언 요지

- **(호주)**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여성에 대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음.
- **(중국)** 여성·아동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아동 분야 개발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가정폭력, 여성고용 촉진 등 100개 이상의 여성 관련 법제를 도입해왔고, 현재 유엔에 제출 예정인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음.
- **(독일)** 베이징행동강령은 독일의 젠더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2015년 남녀 고위관리직의 비율 동등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어 여성임원 할당제가 도입되었고, 일과 삶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금과 어린이집을 지원 중이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오고 있음.
- **(EU)** 2020년은 여성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책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 성·재생산 보건권 및 정보 접근성 보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SDGs, CEDAW와

도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 (AU) 2020년이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인 동시에 ‘African Women’s Decade 2010-2020’이 종료되는 해인바, 그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성 분야 헌법 개정, 성평등 전담부처 신설, 관련 정책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의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성평등 전담부처 예산 문제 해결, 여성 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브라질) 개발, 안보, 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브라질은 현재 베이징행동강령 수립 25주년 기념 이행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바, 경제, 정의, 환경, 교육, 과학기술, 혁신, 보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나. 국제기구 및 NGO 등 발언 요지

- (UN Women) 각국은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해주길 바라며, 동 과정을 통해 향후 동 행동강령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함.
 - 2020년 베이징 행동강령 25주년을 맞이하여 동 이행 검토가 2020년 제 64차 CSW 및 9월 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0.6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Global Women’s Forum’이 개최될 예정인 바, 각국의 관심 및 참여를 요청함.
-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여성은 정의, 평화, 평등 실현에 기여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옹호가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발과 제약이 심해지고 있고, 종종 신체적·성적 폭력까지 가해지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
- (세계의원연맹) 여아의 교육은 많이 개선되어온 반면,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는바, 모든 국가내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설립되도록 각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

2. 상호대화: 이전의제 검토

- 일시 및 장소: 2019. 3. 13(수), 10:00-13: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2019. 3. 14(목), 10:00-13:00, 유엔본부 지하 회의장

□ 핵심내용

- 자발적 발표 참여국들(12개)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간 연계에 대해 각국의 이행현황·성과·이행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 규범적·법적·정책적 체계수립 강화, ▲ 성평 등 달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강화 및 환경 조성, ▲ 여성

리더십 보장과 동등한 참여, ▲ 성인지적 데이터 수집과 평가, ▲ 제도 발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상세내용

가. 주요국 발언 요지

- **(이탈리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2017-2030)에 따라 SDG 5의 달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기업가를 위한 정부보증기금 및 가족정책 지원사업을 이행 중이며, 성인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가통계청에서 2030 의제 이행을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카타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개발 시 인권관점을 고려하며 헌법을 통해 보건과 교육에서 성평등 달성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성들에게 고용시장 진입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7%에 불과하나, 의사결정직 중 30%가 여성으로, 일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스페인)**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이 중요하나 이행의 경우 지연이 많아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개발원조정책에서 성평등 달성 및 성주류화는 핵심으로, 여성연구소(Women's Institute) 등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 **(필리핀)** 국가개발정책(2017-2022)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이행하고 있으며 GAD(Gender and Development) 계획에 의거, 정부 사업뿐만이 아닌 공여국을 통한 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최소 5%의 예산이 젠더관점 반영으로 지출되도록 하고 있음.
 - 정부 고위급의 43%가 여성으로 주기적으로 여성후보자 숫자를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 포괄적 여성인권법인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of Women)에 따라 정책·예산·모니터링·평가에 성주류화를 이행하고 있음.
- **(파나마)** SDG의 주요 정신인 'No one left behind'의 원칙에 따라 지역차원에이르기까지 정책 매커니즘을 구축함. 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여성폭력 인프라 제공 등 여성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증가 추세이며,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고위급 여성공직자 비율 할당제와 선거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에 대한 토지권 부여, 여성 중소기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한 예로, 여성들에게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Women you can do i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슬로바키아)** 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및 위원회가 존재하고, 2004년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노동법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가행동계획과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 (coordinating methodical center), 원스톱 센터가 존재함.

- 최근에는 'Herstory'라는 신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의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수자료 구축,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강의 진행 등이 이루어진 바 있음.

나. 국제기구 및 NGO 등 발언 요지

○ (UN Women) 여성 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는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60차 CSW 이후 3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이행이 불균등하게 일어난 한계가 존재함을 언급함.

- 주요 성과로 ▲ 성차별과 관련한 법과 정책 제정, ▲ ODA에서의 성분석 시행, ▲ 고위급 쿼터제 시행 등 적극적 이행, ▲ 정부 정책에 성주류화 시행 및 성인지 담당관 지정, ▲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되나, ▲ 구조적 장벽, ▲ 전 생애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 하는 바임.

3. 주유엔대표부 및 외교부, 고용노동부 및 한국제협력단과의 정책 협력 네트워킹

□ 일시 및 장소: 2018. 3. 13(수), 13:00 - 15:00, 유엔본부 인근 식당

□ 참석자: 유엔대표부 이주일 참사관, 김지수 서기관, 고용노동부 서유리 사무관, 외교부 윤홍선 사무관 외

□ 주요 내용

- UN 등의 국제회의에서 여성이슈의 중요성 공감
- 유엔대표부 및 유관부처, 본원 간 상호 지속적인 협력교류의 중요성 인식 및 향후 협력 교류 강화

제 5일 차 (2018년 3월 15일, 금)

- 일반토의 (계속)
- 전문가 패널토의

1. 전문가 패널토의

□ 일시 및 장소: 2018. 3. 15(금), 15:00 -18:00, 유엔본부 본회의장

가. 주요 논의 내용

- 본 전문가 패널은 ‘시너지 활용 및 예산 확보’를 주제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의 상호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함께 여성의 소득안정성과 역량 및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5인의 전문가(여성전담부처, 학계, 시민사회, 유엔 등) 발표와 회원국 및 그 외이해관계자들의 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지속가능 인프라 간 연계성, ▲ 이들이 연계되지 못했을 때의 역기능(trade-offs)과 다부문적이고 조정된 접근 시의 이점, ▲ 통합된 접근의 우수사례 및 효과, ▲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함.

나. 전문가 발표 요지

- (Maritza Rosabal 카보베르데 가족사회포용부 장관) 카보베르데에서는 사회보호와 관련된 노력이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영역에서는 이루지 못하다가 2014년 시간사용 조사를 통해 카보베르데의 70%이상의 인력이 무보수 노동(unpaid work)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돌봄체계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작되게 되었음. 2017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인권으로서 돌봄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은 성평등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Gita Sen 인도 공중보건재단 Ramalingaswami 센터 소장)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경우, 사회보장체계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그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인프라 간 시너지가 중요함. 성평등은 이러한 시너지의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성별, 인종, 카스트 등 다양한 취약계층 존재하는 반면,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취약성과 권력

구조(power structure)를 고려하는 교차적인(intersectional)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보건서비스와 인프라의 제공과 접근성 간 시너지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여아가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인권이 실현되어야 함.

- **(Tara Patricia Cookson 콜럼비아대학교 연구위원, Laysmith 소장)** 조건부 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혜자들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혜조건을 판단하는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coercion) 받기도 하며, 조건에서 벗어난 경우 수혜가 필요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사회보장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따라서 사회보호체계는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됨.
- **(Nato Krushitashvili 세계은행 젠더전문관)** 교통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고용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로 젠더 중립적일 수 없기에 관심이 요청됨. 남녀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경험은 각기 다른데, 예를 들면, 안전하고 저렴한(affordable) 교통 및 도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여성들이 교육과 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발·기획에 있어 여성의 니즈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니즈는 다시 소득수준, 나이, 장애여부, 인종, 종교 등 세분화되어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아 성인지적이지 못한 교통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해당 영역의 여성 종사 비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야기되는 바, 성인지적 교통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조사 데이터 구축, 교통 인프라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및 경제활동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 교통 부문의 여성고용 증가 등이 필요함.
- **(Fernando Filgueira 콜럼비아대학교 연구위원)**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사회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복지를 침해하는 그 기저의 편견(underlying biases)을 극복하고, 소득에 기반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환적인(transformative) 정책이 창조되어야 함. 사회보장체계와 관련해 아동 있는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지원, 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지원 의무화,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교육, 돌봄, 보건 분야 사회서비스의 경우, 아동돌봄 수혜대상의 연령이 연장되어야 하고, 육아시설 및 학교의 운영시간이 근무시간에 상응해야하며, 현대적 피임기구가 무료로 제공되어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니즈를 반영해 자가용 이용자보다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여성의 니즈를 반영한 에너지 구축과 식수 및 위생시설 구축

에 대한 투자가 더욱 요청됨.

다. 패널토의 주요 요지

- (Chritina Behrendt, ILO 사회보호부 사회정책팀장) 최근 발간된 ILO 보고서에서는 성평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무급노동과 돌봄 등을 제시함. 앞서 언급한 카보베르데의 사례에서는 무급노동과 돌봄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전환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제시함. 여성은 가정 및 공동체 내에서 돌봄 등에 대한 불평등한 부담을 지고 있고, 이러한 돌봄을 가정 외부에서 제공할 경우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 한편, 여성들의 일자리는 주로 무급노동 및 공공서비스에 주로 분포하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노동시장 내외부 간 연결과 제도적 전환과 더불어, 양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 역시 필요함.
- (Plan International) 많은 청년 여성들이 무보수, 저임금, 비공식부문의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함. 동시에 이들 청소년 및 청년 여성들은 때로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하게 되지만 재생산 보건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임. 플랜인터내셔널은 정부 및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초중등교육과 재생산 보건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플랜인터내셔널은 각국 정부가 여성과 여아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산이 수반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기를 바람.

- 제63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 인프라’를 우선의제로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현황 및 지원정책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논의함. 국제사회는 사회보장체계-공공서비스-인프라 간의 연계성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에 발 맞추어 본원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성평등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또한, 여성의 수요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연령, 장애 등 상호교차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됨. 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미혼모 여성도 그 수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국내정책 및 본원 연구 역시 여성을 단일집단으로 보기보다, 여성이 다양한 상호교차적인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정책 및 연구를 발굴하고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동 우선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1)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2)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필요성 역시 확인됨. 첫째,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이 비공식 노동참여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보험 수혜 등)의 접근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이 논의됨. 둘째,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 교육 및 보건 등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비율은 낮다는 점과, 또한, 사회보장체계-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직결되는 인프라(교통, 수자원 등)의 설계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낮아 여성의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이러한 관련 이슈들과 관련된 본원의 연구 역시 지속·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검토의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큰 틀 안에서 성평등의 달성 없이는 국제사회의 발전 목표인 SDGs의 달성이 불가능하며, 여러 국가의 성평등 정책 역시 SDGs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함. 또한, 2020년도에 이루어질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검토가 국제사회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가짐. 따라서 한국과 본원 역시 이러한 글로벌 여성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원과 UNESCAP 간 협력을 통해 아태

지역 관련 논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이와 더불어 성평등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자선기금, 국제사회 및 ODA의 개발협력 기금, 남성 등)의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임을 확인함. 또한, 역사적·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해결 촉구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폭력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인 온라인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 역시 여러 차례 지적됨. 이러한 선도적 이슈들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본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지속·발전시켜 나가야할 연구주제라고 생각됨.

붙임자료

1. 여성가족부 요청 의제검토의견서 1부.
2. 제 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합의결론 영문 1부.
3. 관련 발표자료 1부. 끝.